

成長과 分配 : 쿠즈네츠假說의 再吟味

李 俊 求*

<目 次>

- I. 머리말
- II. 쿠즈네츠假說의 生成
- III. U字 現象의 理論的 說明
- IV. 쿠즈네츠假說과 開發途上國
- V. 맺음말

I. 머 리 말

經濟發展(economic development)이란 현상이 단지 國民所得水準의 上昇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經濟發展의 궁극적 목표가 大規模의 貧困을 극복하고 國民들의 物質的 厚生을 현저히 개선시키는 데 있다면, 경제의 量的 成長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必要條件에 불과할 뿐 充分條件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보편적 인식은 경제의 質的 改善이 量的 成長 못지 않게 중요한 發展의 요인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태까지의 경험을 종합해 보면 이른바 開發途上國들중에 兩者를 조화있게 실현하는 데 성공한 사례는 지극히 드물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대다수의 국가들이 成長 그 자체에도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成長의 면에서는 비교적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 몇몇 국가에서조차 진정한 發展의 증거를 찾아 보기가 무척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이들의 경우 成長이란 必要條件은 충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發展을 이룩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물론 나라마다 저 나름대로의 독특한 특성에 비추어 찾을 수 있겠지만, 하나의 뚜렷하고 공통된 요소는 分配面에 있어서의 不振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成長의 果實이 國民 모두에게 고루 나누어질 수 있는 메카니즘이 결여된 상황하에서는 빠른 成長도 國民 전체의 物質的 厚生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 本究研所 研究員, 서울大學校 經濟學科 助教授.
本論文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도움말을 준 梁東休 教授께 감사하며, 水曜週例세미나에 참여 하여 지도해 주신 여러 선생님들께도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는 分配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쉽사리 해답을 허용하지 않는 까다로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속성이 다분히 작용하고 있기도 하나, 이에 못지 않게 哲學的 貧困과 理論的 缺如도 큰 몫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지만, 우선 成長만 해놓고 보면 分配의 문제는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으로 經濟發展을 추구해 온 사례를 너무나 많이 보아 왔다. 또한 成長과 分配는 發展의 初期段階에서 필연적으로 相衡될 수 밖에 없다는 그릇된 理論的 認識이 이와 같은 안이한 생각을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되었음도 분명하다. 成長과 分配는 相衡되는 것이고 따라서 發展을 위해서는 成長에 우선적 관심을 둘 수 밖에 없다는 논리는 상당한 정도의 이론적 무장까지 갖추고 있는 듯한 인상까지 풍기면서 한 때를 풍미하였다.

최소한 發展의 初期段階에서는 成長과 分配가 相衡되는 경향이 있다는 理論的 命題는 물론 그르든 간에 쿠즈네츠(S. Kuznets)란 이름과 벨레야 벨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의 연구가 分配의 문제를 經濟發展의 중심과제중의 하나로서 정착시키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다는 데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의 기념비적인 著作이 나오게 된 1955년경만 해도 經濟發展過程에서 分配의 狀態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나 연구가 거의 없던 시기였다. 더구나 각종의 統計資料중에서 分配에 관한 자료는 統計技法이 고도로 발달된 요즈음에 있어서도 그 수집이 지극히 어려운 터에, 數世紀에 걸치는 방대한 分配關係統計를 모아서 정리했다는 공헌 그 자체로도 높이 평가받을 만 했다. 이후로 雨後竹筍처럼 쏟아져 나온 分配問題에 관한 연구논문들이 거의 모두 예외없이 그의 연구결과를 인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아예 그것을 「쿠즈네츠假說」(Kuznets' Hypothesis)로 定型化시킨 것만 보아도 그의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이었던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쿠즈네츠假說」 혹은 보다 자세히 말한다면 「쿠즈네츠의 U-假說」은 그것이 비복誤解에 기인한 것이었다고는 할 수 있으나 經濟發展과 관련된 분배문제의 논의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오게 된 원인이 되기도 했다.⁽¹⁾ 왜냐하면 그 假說은 경제발전의 초기단계에서 分配狀態가 惡化되는 경향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으로 해서 成長과 分配가 필연적으로 相衡된다는 잘못된 결론으로 비약하게끔 하는 계기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은 假說이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것이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成長爲主의 經濟發展을 추구하는 것이 이론적인 면으로 보아서도 타당하다는 인상을 심어 준 것은 사실이다. 따지고 보면 經濟學界에서는 「쿠즈네츠假說」이 엄밀하게 말해

(1) 成長이 진행되어 감에 따라 分配의 상태는 일단 나빠졌다가 나중에 가서야 개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U字 모양의 궤적을 그리게 된다해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逆U假說(Inverted-U hypothesis)」이라 부르기도 한다.

무엇을 내용으로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조차 의견의 통일을 보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우리는 과연 그 가설이 실제의 경험과 부합되는 것인가를 檢證하기에 앞서, 그 가설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작업을 우선 수행해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야 비로소 假說의 檢證을 거쳐서 하나의 命題로서 定立될 수 있는 것이다.

本論文中에서 필자는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쿠즈네츠假說의 再吟味를 통한 體系的 整理를 시도하고, 나아가 그 假說이 경제발전과정에 대해서 갖는 含意를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대략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시키려 한다. 우선 다음의 第2節에서는 假說의 形成過程을 고찰하게 될 것이다. 즉 어떻게 가설이 형성되었으며 어떻게 檢證되었느냐를 살펴 보게 된다. 第3節에서는 假說이 말하고 있는 分配上的 U字 現象의 원인에 대한 理論的 說明을 시도하려 한다. 이들이 전적으로 筆者의 독창적인 설명인 것은 물론 아니며 여기저기서의 논의를 짜맞추어 정리한 성격이 강하다. 또한 이 설명들이 어떤 확실한 근거위에서 제시된 것이 아니며 단지 이러했을 것이다라는 차원의 推理에 불과함을 미리 밝혀 두고자 한다. 그 다음의 第4節에서는 假說이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에 대해서 갖는 의미를 논의하게 된다. 여기서는 假說을 開發途上國에 대해서도 적용해 보고자 할 때 어떤 문제점에 봉착하게 될 것인가를 주로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節은 논의의 要約과 더불어 간단한 맺음말로 구성될 것이다.

II. 쿠즈네츠假說의 生成

쿠즈네츠假說은 쿠즈네츠 그 자신이나 혹은 다른 어떤 學者에 의해 포괄적으로 提起되고 立證되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假說이 아니다. 1955년과 1963년에 발표된 쿠즈네츠의 두 勞作에 그 가설의 원초적 아이디어가 담겨 있는 점에 주목하여 이곳 저곳에서 인용되는 과정에서 自然發生的으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假說의 내용에 대해 상당히 애매한 점을 발견할 수 있으며, 假說의 정당성을 입증할 자료들도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假說의 再吟味를 통해 그 내용이 정확히 무엇이나를 밝히는 일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우선 本節에서는 假說이 提起되고 여러 資料에 의해서 立證되는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보고자 한다.

1. 假說의 提起

한 經濟가 成長함에 따라 分配의 狀態가 어떤 양상을 보일 것인가에 최초의 관심을 보인 것은 1955년의 논문이었다. 그는 이 논문에서 成長의 初期段段에서는 分配의 狀態가 일단 악화되다가 어느 단계에 이르러서야 改善되기 시작하는 것 같다고 말함으로써 오늘날 우리

가 보는 「쿠즈네츠假說」의 첫 씨앗을 뿌렸다. 그렇지만 그에게 있어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할만한 확실한 근거는 갖고 있던 것은 아니다. 그가 제시한 자료들은 오늘날의 先進國들이 成長해 오는 과정에서 分配의 狀態가 현저히 개선되어 왔음만은 확연히 보여 주고 있다. 예컨대 美國에서는 1929년에 13.5%이던 下位 40%의 所得段層의 몫이 第二次世界大戰 직후에는 18%로 증가되었으며 반면 上位 20%의 所得段層의 몫은 55%에서 44%로 떨어졌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경향은 英國에서도 그리고 獨逸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²⁾

이에 반해서 쿠즈네츠의 논문 어디를 보아도 初期段階에서 不平等이 深化되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³⁾ 그러면서도 그가 U字 모양의 長期趨勢를 주장하게 된 배경에는 약간의 추측 또는 논리적 비약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점은 다음에 인용한 쿠즈네츠의 말을 음미해 보면 바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비록 소부한 것이나 實證的 資料에 미루어 보면 先進國에서의 所得分配의 不平等이 줄어들게 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이었다고 아마도 成長의 初期段階에선 그렇지 않았던 것으로 짐작된다.……初期段階에 있어서는 高所得者의 몫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거나 혹은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요인들이 지배적이며, 그들의 經濟的 地位가 새로운 產業에서 나오는 이득과 새로운 재산의 창출로 더욱 強化되는 한 產業化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不平等化의 힘은 後期보다 더욱 강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所得分配의 추이를 상정할 수 있다. 즉 產業社會로의 전환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經濟成長의 初期段階에서는 不平等이 深化되고 그후 당분간 안정된 추세를 보이다가 그 다음 단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不平等이 줄어들게 된다(쿠즈네츠, 1955, p. 18)……”

쿠즈네츠는 자신이 가진 實證的 資料로서는 이들 先進國이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현저한 分配狀態의 改善을 경험했음만을 입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에는 한동안 惡化의 과정을 거쳤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렇게 추측하게 된 배경에는 產業化 初期段階에 있어서 不平等의 深化를 가져올 수 있는 여러 요인이 존재했을 것이라는 막연한 관찰이 있을 뿐 엄밀한 증거의 제시는 전연 없었던 것이다.

(2) 쿠즈네츠는 成長하는 經濟 内部에 존재하는 몇가지의 요인들이 不平等의 深化를 가져올 수 있음에 비추어 이 현상은 놀라운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다.

(3) 本 論文에서 「不平等」이란 用語는 分配의 「不均等(inequality)」라는 말의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엄밀히 말해 兩者는 같을 수 없음은 물론이나 여기서는 문제삼지 않기로 한다.

쿠즈네츠의 1963년의 논문에서도 사정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이 論文의 前半部는 先進國과 開發途上國을 그룹으로서 비교해 볼 때 先進國에서의 所得分配가 더욱 평등한 것이라는 증거가 제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쿠즈네츠 假說을 橫斷面(cross-section) 資料로서 정당화시킬 수 있는 현상, 즉 중간정도의 1人當 國民所得을 가진 나라에서 가장 不平等한 分配상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전혀 나타나 있지 않고 있다.⁽⁴⁾ 이 논문의 後半部에서는 美國, 英國, 獨逸외에도 스칸디나비아諸國에서의 各국別 長期分配趨勢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도 그 焦點은 어디까지나 平等化의 進行에 관한 것이고 初期段階에 있어서의 악화를 신빙성 있게 보여줄 대목은 찾아 보기 힘들다.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評價는 소위 쿠즈네츠假說이 맨 처음 제기된 것은 쿠즈네츠 자신에 의해서였지만 완벽한 증거까지 갖추고 이를 제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假說의 前半部 즉 初期段階에서의 不平等의 深化에 대한 立證은 뒤에 나오는 사람들의 연구성과에 기대할 수 밖에 없었다. 다음의 小節에서는 이 假說의 정당성을 입증해 주는 일련의 實證의 研究를 정리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2. 假說의 立證

쿠즈네츠假說은 한 經濟가 成長하고 있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일에 관한 經驗的 法則에 관한 것이므로 이를 직접적으로 검증하는 길은 各국의 長期時系列資料를 이용하는 것 밖에 없다. 그러나 이같이 長期에 걸친 時系列(time-series) 資料를 충분히 확보하기란 무척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많은 學者들이 橫斷面資料를 가지고 간접적으로 檢證하는 방법을 택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에 의한 검증은 어디까지나 間接적이지 엄밀하게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橫斷面資料를 가지고 쿠즈네츠假說을 검증하는 데서 파생된 또 하나의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은 그와 같은 검증과정을 통해 假說의 성격 그 자체가 미묘하게 변질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후에 더욱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쿠즈네츠假說은 오늘날의 先進經濟가 과거에 걸어온 길이 어떠했나에 관한 가설이지 오늘날의 開發途上에 있는 經濟가 앞으로 어떤 경로를 밟게 될 것인가에 대한 가설은 결코 아니다. 물론 이와 같은 歷史的 經驗에서 앞날의 일을 유추해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으나 거기에는 엄연한 한계가 있는 법이다. 쿠즈네츠假說을 橫斷面資料의 틀에서 논의할 때 사람들이 부지불식간에 갖게 되는 생각은 현재 1人當 國民所得이 가장 낮은 水準에 있는 經濟가 成長을 거듭하여 中位圈에 도달하게 되고 이윽고 현재의 上位圈에 속해 있는 經濟의

(4) 물론 이와 같은 橫斷面 資料를 통한 쿠즈네츠假說의 검증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에 나올 것이다.

수준에 도달하게 되는 과정에서 分配의 狀態는 橫斷面上的 趨勢曲線과 마찬가지로 U字 모양을 그리게 될 것이라는 생각일 것이다. 이러한 생각은 假說의 원래의 의도를 미묘하게 번질시킨 것으로서 가설을 둘러싼 논의에서 혼란이 일어나게 된 한 원인이 되었다.

(1) 時系列資料에 의한 立證

쿠즈네츠(1955, 1963)가 수집하여 정리한 時系列資料는 당시로서는 엄청난 작업을 거쳐야만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 중요성을 높이 평가할 수 있겠으나, 한 나라 한 나라를 놓고 따져 볼 때 쿠즈네츠假說을 충분히 입증할 만큼은 되지 못했다. 따라서 보다 신빙성 있는 假說의 입증을 위해서는 個別國家에 대한 보다 深度있는 연구가 요구되었다. 이러한 방향에서 하나의 획기적인 章을 열게 된 것이 솔토우(L. Soltow: 1968)의 논문이었다. 그가 정리한 英國의 所得分配資料는 1436년에서부터 1963년에 이르는 긴 時期에 걸친 것으로서 이렇게 오래 전의 時點까지 거슬러 올라 갈 수 있었다는 점만으로도 주목을 끌만한 업적이었다. 솔토우가 내린 결론을 요약해 보면 다소의 浮沈은 있었지만 18, 9세기까지의 英國의 所得分配는 상당히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 왔으며 第一次 世界大戰을 즈음해서 현저히 改善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그가 강조하고 싶어 했던 점은 美國이나 獨逸의 경우에 대해 주장되는 産業化 初期의 不平等의 深化가 英國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던 것 같다. 그렇다면 그의 연구결과가 쿠즈네츠假說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것은 아닌 셈이 된다. 第一次 世界大戰을 전후하여 현저한 改善이 있었다는 부분은 쿠즈네츠와 일치하나 그 이전에 있어서의 不平等의 深化는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第一次 世界大戰 때까지의 상당히 오랜 기간동안 英國의 所得分配의 狀態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는 「솔토우假說」을 비판하고 나선 것이 린더트—윌리엄슨(P. Lindert and J. Williamson: 1983)이었다. 그들은 솔토우의 연구에 몇가지 간과할 수 없는 결점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우선 지적하고 있는 점은 솔토우가 연구의 기초로 삼은 社會指標(social tables)의 경우 오류가 많은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거나 새로이 修正된 것을 감안하지 못한 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심각하게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솔토우가 고려되는 기간중의 일부에 대해서는 貧民에 대한 救護金을 소득으로 잡고 다른 부분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相互比較하기 힘들게 만든 점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린더트—윌리엄슨은 스스로 손질하여 재구성한 英國의 社會指標에 입각하여 솔토우假說을 뒤엎는 새로운 假說을 제기하게 되었다.

「린더트—윌리엄슨假說」의 첫 부분은 分配狀態의 改善이 시작된 시기를 솔토우의 1913년에서 1867년으로 훨씬 앞당긴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5), (6)} 그리고 두번째 부분은 1867년 이

전의 시기에 있어 所得分配가 변화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점차 惡化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결국 린더트—윌리암슨의 연구결과는 쿠즈네츠 假說의 U字 모양을 명백하게 지지해 주는 것이었다. 윌리암슨(1980, 1986)은 또 다른 논문에서 19세기 英國의 勤勞所得(earnings) 資料를 검토하고 이의 分配狀態 역시 U字 모양의 경로를 보인다는 결론을 내렸다. 즉 1820년부터 1850년까지는 不平等이 深化되다가 이후에 다시 反轉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윌리암슨은 勤勞所得에 있어서의 不平等度가 全體所得의 그것보다는 현저히 낮은 것이지만 兩者의 趨勢 그 자체는 비슷함을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勤勞所得의 分配狀態가 U字의 경로를 보인다면 全體所得의 分配狀態도 역시 U字의 경로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英國의 경우에 있어서 쿠즈네츠假說의 타당성은 상당한 정도로 立證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美國의 分配狀態에 대한 선구적 업적으로는 크레이비스(I. Kravis: 1962)를 꼽을 수 있다. 그는 1929년에서 1958년에 걸친 기간에서 稅前 家計所得의 分配狀態는 호전되는 양상을 보였음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그 이전의 시기에까지는 미치지 못함으로써 初期段階에서의 不平等化 進行 여부는 가려내 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⁷⁾ 美國의 경우에도 완전한 U字 모양의 경로를 발견할 수 있음을 신빙성 있게 보인 것은 린더트—윌리암슨(1980)에 이르러서였다. 그들이 묘사한 美國에서의 所得과 富의 分配推移는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1820년으로부터 1860년에 이르는 시기에는 不平等化가 급속도로 진행되던 것이, 南北戰爭 이후에는 그 진행속도가 크게 감소된 상태에서 不平等化는 계속 되었다. 그리하여 1929년까지는 몇 차례의 浮沈을 경험하다가, 이때부터 第二次 世界大戰때까지의 시기에서는 현저한 平等化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分配狀態는 비교적 안정된 추세를 보인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와 같이 린더트—윌리암슨의 연구결과는 美國의 경우도 쿠즈네츠假說과 부합된다는 것이었다.

獨逸의 경우에 있어서는 英國이나 美國의 경우처럼 뚜렷한 연구결과를 찾아 보기 힘들다. 우리가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여러 단편적인 연구결과를 짜맞추어 하나의 모양을 만들어 내는 일일 것이다. 쿠즈네츠(1963)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프로코포비치(S. Prokopo-

- (5) 이러한 分岐點은 예초에는 救貧對象者(paupers)를 제외한 所得資料에서 찾아졌으나 이들을 포함해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말하고 있다.
- (6) 린더트—윌리암슨은 이 해가 마르크스의 資本論 第一卷이 출판된 해이며, 勞動組合이나 累進稅制가 등장하기 훨씬 전인 동시에 政府支出이 國民所得서 차지하는 비중도 아직 작은 때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 (7) 크레이비스에 의하면 1890년부터 1920년까지의 기간에는 不平等이 감소되다가 20년대에 이르러 잠깐 不平等이 증가되는 과정을 거쳤다고 언급하기는 했다.

vich: 1926)는 프러시아(Prussia)의 高所得者 5%의 몫이 1854년의 21%에서 1875년의 26%를 거쳐 1913년의 30%로 커져 왔음을 보여 주었다. 뮐러(J. Mueller)도 1873년에서 1900년에 이르기까지 이들의 몫이 28%로부터 32%까지 약간씩 늘어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獨逸의 다른 한 부분 즉 삭스니(Saxony)에서의 분배추세는 그다지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다. 다음으로 帝國統計局(Reich Statistical Office)의 자료와 國際聯合(UN)의 자료를 짜맞추어서 관찰해 보면 1913년 이후 分配狀態가 서서히 改善되었음을 알 수 있다. 獨逸의 경우 이와 같이 불충분하나마 쿠즈네츠假說이 부합됨을 보일 수가 있었다.

그러나 여타의 先進經濟에 대해서는 뚜렷한 U字의 패턴을 발견하기가 힘들었다. 예를 들어 쿠즈네츠가 제시한 자료에는 네델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등의 나라에서 分配의 狀態가 개선되어 온 것만이 보일 뿐 初期段階에서의 惡化는 볼 수 없다. 이들 나라중 특히 노르웨이의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친 分配의 統計가 모아져 있어 우리의 관심을 끌고 있다. 솔트우(1965)가 정리한 자료에 의하면 노르웨이에서는 1840년에서부터 1960년에 이르는 긴 시기에 걸쳐 지속적인 平等化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속도는 1900년대에 들어 오면서 더욱 급속해졌다. 이렇게 初期의 惡化段階를 거치지 않은 지속적인 改善의 사례는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으로 돌려버릴 수도 있겠으나, 노르웨이에 관한 자료가 상당히 자세하고 정확하게 모아져 있기 때문에 쉽사리 무시해 버리기는 힘든 점이 있다.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의 경험에서 쿠즈네츠假說에서와 같은 U字 모양의 패턴을 찾기는 더욱이나 힘들다. 이들에 관해 얼마 되지 않은 時系列資料는 이들 經濟에서 뚜렷한 惡化에서 改善으로의 反轉을 보이고 있는 예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게 하고 있다. 예컨대 브라질이나 印度의 경우 資料에 따라 어떤 것은 계속 악화된 것을 보이거나 어떤 것은 계속 개선됨을 보이고 있을 뿐 轉換點을 뚜렷이 보이고 있는 사례는 드물다.⁽⁸⁾ 또한 와이스코프(R. Weiskoff: 1970)의 연구에 의하면 푸에르토 리코의 경우 1953년과 1963년의 분배상태를 비교해 볼 때 보다 惡化되었다는 쪽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⁹⁾ 그러나 파이等(J. Fei et al.: 1978)의 台灣에 관한 연구는 本格的인 産業化가 시작된 1968년을 起點으로 하여 分配의 狀態가 눈에 띄게 개선되었으며, 그 이전의 단계에서 눈에 띄는 惡化의 단계를 거치지 않았음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그들은 台灣의 경험이 쿠즈네츠假說을 否定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있다.

(8) 브라질의 경우는 피쉬로우(A. Fishlow: 1972), 필즈(G. Fields: 1977), 바커-테일러(E. Bacha and L. Taylor: 1978) 등을 참조하고 인도의 경우는 포커트(F. Paukert: 1973)가 정리한 자료를 참조하라. 이들 대부분이 不平等의 深化쪽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음을 볼 수 있다.

(9) 와이스코프의 자료는 아르헨티나와 멕시코에서 1960년을 분기점으로 약간의 개선이 있음을 보이고 있지만 관찰의 횟수가 오직 한번뿐으로 지속적인 개선의 단계로 전환했다고 보기는 힘들다.

여태까지의 論議를 종합해 보면 한 經濟가 成長하는 과정에서 分配의 狀態가 U字의 모양을 그린다는 假說이 오늘날의 先進經濟에 있어서는 비교적 신빙성 있게 立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開發途上國의 經驗에서 이와 비슷한 패턴을 찾아 보기는 극히 힘들었다. 이는 결국 쿠즈네츠假說이 오늘날의 先進經濟가 걸어온 과정에 대한 經驗的 法則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백히 해주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없다.

(2) 橫斷面資料에 의한 立證

橫斷面資料를 가지고 쿠즈네츠假說을 檢證하려 할 때 앞서 지적한 문제점 이외에도 각국의 고유한 여건에서 생기는 차이를 구별해낼 수 없는 등의 문제점이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時系列資料가 워낙 빈곤하기 때문에 橫斷面資料로서 假說의 立證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아래에서 소개할 이와 같은 방향의 연구는 假說의 결정적인 立證의 역할을 하기에는 기본적인 制約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쿠즈네츠(1955)에 이은 선구적 업적으로서 開發途上國의 分配狀態가 先進國의 그것보다 不平等함을 再確認한 것이 크레이비스(I. Kravis: 1960)의 연구이다. 바로 뒤이어 나온 오시마(H. Oshima: 1962)의 연구는 비록 열도 안되는 나라간의 비교라는 제한된 범위이긴 하지만 成長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의 단계에서는 상당히 平等한 상태로 시작해서 産業化 및 都市化가 진전되면서 不平等해지는 현상을 보임을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1963년의 쿠즈네츠의 논문을 포함한 이들 초기의 연구들은 쿠즈네츠假說의 부분적인 근거는 제공하여 주고 있기는 하나 假說의 특징 즉 U字 모양의 패턴을 명료하게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이었다.

비록 설명력이 그리 크지는 못하다는 제약을 안고 있으나 國際的인 비교에서 처음으로 U字 모양이 나타난 것은 아델만—모리스(I. Adelman and C. Morris: 1971)가 수집한 자료였다. 그러나 클라인(W. Cline: 1975)이 논평했듯 그들의 자료에서 나타난 결과가 통계적으로 有意한 것임에는 분명하나 워낙 설명력이 낮아 오히려 아무 패턴없이 흩어져 있는 점들(random scatter)이라고 하는 편이 오히려 나올 정도였다.⁽¹⁰⁾ 또한 포커트(F. Paukert: 1973)는 아델만—모리스의 자료에 많은 오류가 있음을 지적하고 특히 그들의 자료가 가장 低開發狀態에 있는 나라들의 所得分配를 사실 이상으로 平等하게 보이도록 왜곡시키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그는 아델만—모리스의 연구대상이 된 44個國에서 資料의 신빙성이 없는 4個國을 빼고 16個國을 추가한 개선된 資料를 제시했는데 이에 의할 때도 역시 명백한 U字의

(10) 아델만—모리스 자신들도 그 직후에 쓰여진 저서,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에서 소득분배의 주요 결정인자 6개를 지적하고 있는데 GNP나 GDP의 수준은 그중 하나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음.

패턴이 드러나고 있다. 즉 조사대상이 된 56個國을 1965年 1人當 GDP를 기준으로 몇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면 300달러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不平等이 계속 上昇하여 301~500달러에 이르는 그룹이 가장 높은 不平等度를 보이고 그 이상으로 가면 점차 줄어드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결과는 체너리—서퀸(H. Chenery and M. Syrquin: 1975)에 의해서도 제시된 바 있다.

橫斷面資料를 가지고 쿠즈네츠假說을 檢證하고자 하는 논문 가운데서 가장 짜임새 있는 것중의 하나가 알루왈리아(M. Ahluwalia: 1976)의 논문일 것이다. 이 논문은 標本의 數—60個國—에 있어서나 資料의 處理 및 分析의 嚴密性에 있어서나 모두 이전의 논문들의 수준을 훨씬 넘는 것이었다. 그의 推定式은 不平等의 정도가 1人當 GNP의 로그와 2次式의 관계에 있음을 보임으로써 U字의 모양을 확인하였다.⁽¹¹⁾ 그러나 사이드(A. Saith: 1983)는 알루왈리아가 발견한 U字 모양의 곡선은 결점 투성이의 資料와 문제점 있는 方法論에서 얻어진 것이라고 痛駁했다. 그런데 실은 사이드의 批判內容이 알루왈리아 자신에게만 적용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 橫斷面資料로서 쿠즈네츠假說을 檢證하려 하는 모든 研究者에게 적용되어야 마땅할 것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알루왈리아의 資料들이 여기저기서 켜어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分配에 관한 자료의 稀少性에 비추어 본다면 그리 정당한 비판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알루왈리아의 U字 모양의 곡선이 標本の 조그만 변동에도 쉽사리 영향받는다라는 지적은 충분한 고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 들면 알루왈리아의 標本중 社會主義國家 여섯개를 빼고 나면 R^2 가 원래의 0.57에서 0.18로 떨어진다는 사실은 알루왈리아의 결과가 그다지 탄탄하지 않다는(not robust) 점을 잘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한 나라에 대해 하나의 時點에 대해서만 標本에 집어 넣을 것이 아니라, 여러 時點에 있어서의 관찰이 可用하다면 모두 집어 넣었어야 한다는 지적도 옳다고 생각된다.⁽¹²⁾ 하여간 알루왈리아의 연구는 國際的인 比較로서 쿠즈네츠假說을 檢證하고자 하는 시도가 일반적으로 갖는 모든 문제점을 갖고 있기는 하나 이 방면으로의 연구로서는 대표적인 것으로 꼽을 만하다는 종합적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이다.

(3) 쿠즈네츠假說은 立證되었는가?

여태까지 소개한 여러 연구를 종합해서 쿠즈네츠假說이 입증되었는가를 따져 볼 때가 되

(11) 물론 2次식의 계수들이 적합한 부호를 가져야만 U字 모양이 나올 수 있다. 알루왈리아는 적합한 부호를 가질 뿐 아니라 모두가 有意함을 밝혔다. 더욱 구체적인 것은 알루왈리아(1976)의 <表 1>을 참조하라.

(12) 사이드는 한 나라에 대해 하나의 관찰만을 標本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는 所得分配의 不平等에 있어서의 차이를 설명함에 있어 모든 나라가 1人當 GNP를 제외하고는 똑같은 위치에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나라마다 독특한 社會的, 歷史的 背景이 있다면 이 방법은 정당화 될 수 없다.

었다고 생각된다. 거듭 강조하거나 쿠즈네츠假說의 本質은 한 經濟가 成長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현상에 대한 法則이다. 따라서 橫斷面資料가 얼마나 명료한 U字의 패턴을 그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假說의 간접적 입증에 지나지 않을 뿐 직접적이고 결정적인 입증을 해준다고 볼 수는 없다. 時系列資料에 입각해서 판단해 볼 때 오늘날의 先進經濟에 대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우선 美國, 英國, 獨逸의 세나라의 역사적 경험은, 産業化 初期에 있어서의 不平等化의 진전과 나중 段階에 있어서의 平等化로의 反轉을 비교적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先進國에서 이와 같이 뚜렷한 추세를 읽기는 힘든 것으로 판단된다. 무엇보다도 開發途上國의 경우에는 희미하게나마 U字의 모양조차도 찾기 힘들다는 사실이 우리의 관심을 끈다. 이 사실은 쿠즈네츠假說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와도 관련이 있는 일이기도 하다.

開發途上國의 경우 한 나라의 한 시기를 두고서도 그기간 동안 分配가 보다 平等해졌는지 혹은 그 반대니 해서 의견이 분분함을 보았다. 이는 연구의 역사가 일천하고 資料가 미비한 등의 기본적인 제약때문에 불가피한 일이기도 하다. 하여간에 분명한 사실은 어느 한 나라에서도 쿠즈네츠假說에 부합되는 전개를 명백하게 발견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이는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의 경험으로서 假說의 立證을 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므로 쿠즈네츠假說을 넓게 해석하여 先進國이든 開發途上國이든 모든 成長하는 경제에 적용될 수 있는 假說이라 한다면 이의 완전한 立證은 불가능한 것이라고 결론짓지 않을 수 없다. 반면에 좁게 해석하여 오늘날의 先進國이 걸어 온 과정에 대한 經驗的 法則이라고 한다면 상당히 신빙성있는 立證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오게 된다. 오늘날 우리가 經濟發展의 테두리 안에서 分配의 問題를 논의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이는 쿠즈네츠假說을 이와 같이 넓게 보느냐 혹은 좁게 보느냐의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筆者의 소견으로는 좁은 의미로 해석하는 쪽이 타당하리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넓은 의미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 그 정당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III. U字 現象의 理論的 說明

分配의 狀態가 계속해서 악화되거나 혹은 계속해서 호전된다고 할 때 그 이유를 드는 것은 비교적 간단할 것이다. 그러나 어느 단계까지는 악화되다가 얼마후 反轉되는 全過程을 하나의 說明因子로서 모두 설명하기는 무척 힘이 든다. 다만 우리는 成長의 諸段階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현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분배의 추이와 관련된 것을 몇개 들 수 있을 뿐이다. 아래에는 이와 같은 몇개의 說明因子들을 제시하여 U字 패턴의 이론적 설명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1. 二重構造下的 成長

U字 모양의 분배추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經濟發展에 관한 여러 模型중 가장 오래된 것중의 하나이며 동시에 가장 설득력이 큰 模型중의 하나인 루이스(A. Lewis: 1954)타입의 「二重構造의 模型(Dual structure model)」을 동원해 볼 수 있다. 루이스가 설명한대로 미처 開發이 되지 않은 경제에서는 資本主義的인 近代的 部門과 무한히 供給可能한 勞動(unlimited supply of labor)으로 대표되는 傳統的 部門이 並存하고 있다. 그런데 원래의 루이스模型은 傳統的 部門에서는 勞動剩餘가 고갈될 때까지 두 部門에서의 實質賃金이 동일한 수준에 머문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음으로 해서 U字 모양의 패턴을 설명하는 데 딱 적합한 것은 아니었다. 즉 두개의 상이한 部門이 존재함을 상징하는 것만으로는 이와 같은 패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었다.

二重構造의 模型이 충분한 설명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적인 측면의 보충이 필요했고 바로 이 역할을 담당한 것이 해리스—토타로(J. Harris and M. Todaro: 1970)의 「都農移住의 模型(Urban-rural migration model)」이었다. 그들에 있어서는 二重構造가 都市와 農村의 두 부분으로 갈라져 있음을 의미하게 되는데 경제발전의 과정에서 사람들이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게 되는 현상과 소득분배의 추이를 연결시키는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¹³⁾ 그들의 模型에 있어서의 대표적인 농촌거주자는 다음의 과정을 거쳐 도시로의 移住를 결심하게 된다. 그는 도시로 이주했을 때 적당한 직장을 찾을 수 있을 경우 현재 자신이 농촌에서 얻는 소득보다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현재보다 훨씬 소득이 낮은 都市零細民으로 전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다. 말하자면 그는 도시에서 직장을 잡을 수 있는 確率 π 에 대한 지식을 이용하여 도시에서의 「期待所得」을 형성하는 것이다.⁽¹⁴⁾ 농촌에 살고 있는 사람이 도시로 移住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 도시와 농촌간의 期待所得의 차이이다. 이 같은 部門間的 人口移動이 U字 모양의 분배추이와 관련을 갖는 소이는 다음과 같은 쿠즈네츠(1955)의 설명에 잘 나타나 있다.

쿠즈네츠는 우선 都市部門에서의 平均所得이 農村部門보다 높을 뿐더러 分配의 상태도 보다 不平等함을 지적하였다. 도시부문의 不平等이 보다 크다는 것은 앞서의 해리스—토타로

(13) 해리스—토타로의 二重構造와 루이스의 二重構造는 약간 의미가 다르긴 하다. 그러나 해리스—토타로 模型에서의 都市部門은 루이스의 近代的 部門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農業部門은 그대로 傳統的 部門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양자의 차이가 별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다.

(14) 이 確率 π 는 도시의 총노동력중 경식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대로模型에서도 암시되고 있는 바였다. 왜냐하면 傳統的 部門이라 할 수 있는 농업부문에 서는 모두가 비슷하게 生存에 필요한 만큼의 수입(subsistence earnings)만을 얻고 있는데 비해, 도시부문에선 近代的 部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失業者 혹은 뜨내기 일을 하는 사람도 섞여 있기 때문에 分配의 分布가 널리 퍼져있게 마련이다.⁽¹⁵⁾ 따라서 分配의 상태가 보다 불평등한 都市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경제 전체의 不平等의 정도가 커지게 된다.

이와 같은 都市로의 流入이 계속되면 급기야는 농촌부문에 있어서의 勞動力剩餘現象은 없어지게 된다. 루이스模型에서 상정되고 있는 바 간신히 生存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수입에서 무한히 많은 노동의 공급이 가능했던 傳統的 部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농촌부문의 소득이 현저히 상승하기 시작하고 이같은 힘이 경제 전체의 平等化를 가져 오기 시작한다. 이같이 二重構造에 입각한 설명을 보다 엄밀한 시각에서 다루고 있는 논문으로서 로빈슨(S. Robinson: 1976), 필즈(G. Fields: 1979), 그리고 아난드-칸부르(S. Anand and S. Kanbur: 1984) 등을 들 수 있겠으나 이들의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모두 여태까지 설명한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2. 資本蓄積과 産業化

쿠즈네츠(1955)는 經濟成長이 시작되면서 分配의 狀態가 악화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요소로서 극소수의 高所得者에 의해 資本蓄積이 행해지는 사실을 꼽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先進經濟가 産業化 初期段階에 있을 때 필요한 資本을 蓄積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극소수의 사람들이었다. 요즈음의 開發途上國에서는 政府의 역할도 꽤 중요한 것을 보게 되지만 당시에 있어서의 政府에 의한 資本蓄積은 그리 눈에 띄는 정도가 아니었다. 따라서 이들 소수의 사람들에 의해서 蓄積이 행해지고 이들이 産業化를 주도하게 되자 자연히 經濟力은 이들의 수중에 집중되었던 것이었다. 産業化 初期에 있어서 이들 계층이 가졌던 獨占의 地位로 말미암아 이들이 엄청난 富를 끌어 모을 수 있었던 사례는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다.⁽¹⁶⁾

이와 같이 成長의 初期段階에서 극소수의 사람에 의해 資本蓄積과 産業化가 주도됨으로 말미암아 不平等의 深化를 가져오게 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이 자명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같은 요인이 어떻게 하여 平等化로의 反轉을 가져오게 되었느냐일 것이다. 쿠즈네츠(1966)는 近代的 經濟成長의 過程을 설명하면서 産業化가 어느 정도 진전되면 다음과 같은 현상

(15) 뜨내기 일을 하는 사람을 총칭해서 非公式部門(informal sector)라고 하기도 한다.

(16) 예를 들어 커메너-스마일리(W. Comanor and R. Smiley: 1975)나 룬드버그(F. Lundberg: 1968)를 보라.

이 나타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를 통해 어느 정도의 설명이 가능할 것 같다. 우선 産業化의 진전은 勤勞階層의 底邊을 넓혀 數的으로 보아 企業家階層에 비해 압도적인 우세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경제 전반의 분배상태에 대해 企業家階層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는 점차 축소되며 이와 동시에 平均的인 家計所得중 勤勞所得의 비중이 점차 커진다. 주지하는 바대로 勤勞所得은 非勤勞所得보다 훨씬 고르게 분배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고 따라서 이의 比重增加는 전반적인 平等化를 가져 오게 된다. 또 한편 産業化의 진전은 農業部門의 상대적 규모축소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主要産業部門間的 生産性的 隔差가 줄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部門間的 平等化가 分配의 平等化에 기여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서 요약해 보면 成長의 初期段階에 있어서는 극소수의 資本家 그룹이 성장을 주도함에 따라 富의 偏重現象이 생기다가, 産業化가 진전됨에 따라 성장의 힘이 경제 전반에 고루 퍼지게 되어 平等化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현상은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의 경우에도 그대로 再現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물론 본격적인 평등화의 단계에 접어 들었다고 보여지는 나라는 아직 거의 찾아 볼 수 없고 대부분의 나라가 富의 偏重이 수반되는 産業化의 단계에 머물러 있기는 하다.

3. 人口變化의 推移

유럽大陸에서 近代的 成長의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을 때 人口增加의 패턴도 여태까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쿠즈네츠(1966)가 얘기하듯 紀元1000年 정도까지의 世界人口는 平均 10年間 0.3%라는 낮은 率로 성장해 왔으며 이 추세는 1750년경까지 계속되었다. 예를 들어 1000년에서 165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의 平均 人口增加率의 통계를 보면 200年間に 겨우 20%내외밖에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던 것이 갑작스런 증가 현상을 보여 1750년부터 1950년까지의 200년동안 世界人口는 무려 200%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던 것이다.

소위 「人口急增의 理論(theory of demographic transition)」이라는 이론으로 정리되어 대표되어지는 이 현상은 近代的 經濟成長과 더불어 나타난 중요한 변화로 이해되어지고 있다. 이 현상의 發火點은 死亡率의 현저한 低下였다. 近代的 成長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더 풍요한 物質의 生活과 보다 나은 保健衛生環境을 향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死亡率의 급격한 저하를 가져오게 했다. 다른 한편 近代的 成長은 사람들의 生活樣式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보다 적은 수의 子女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出生率의 低下는 死亡率이 급격히 저하되기 시작한 時點보다 훨씬 뒤에 일어남으로써 人口急增을 촉발

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出生率과 死亡率은 계속 낮은 수준에 머무르게 되었지만 빠른 속도의 人口增加를 지속하도록 兩者의 격차가 유지되었다.⁽¹⁷⁾ 그리하여 1750년에서 190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人口增加率は 계속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게 되었다. 이 증가현상이 일단 멈추고 안정된 국면에 들어서게 된 것이 1900년을 전후한 시기였다.⁽¹⁸⁾ 유럽大陸과 유럽 사람들이 정착한 곳에서의 平均 10年間 人口增加率は 쿠즈네츠(1966)의 <表 2.2>에서 보면 1850~1900년의 기간동안 11.3%까지 증가했던 것이 1900~1930년의 기간동안에는 11.1%로 그리고 1930~1960년의 기간 동안에는 다시 10.8%로 감소됨을 볼 수 있었다.⁽¹⁹⁾

이러한 人口增加의 推移와 分配狀態의 U字 패턴이 어떤 관련을 갖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쿠즈네츠(1955, 1979) 뿐 아니라 알루왈리아(1976)에 의해서도 제기되었다. 쿠즈네츠는 구체적인 근거에 입각해서 그러한 주장을 한 것이 아닌 반면 알루왈리아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그같은 주장을 폈다. 알루왈리아가 제시한 근거는 人口成長率과 分配의 平等度가 逆의 相關關係를 가진다는 橫斷面資料에서의 관찰이었다. 즉 人口成長率이 높을수록 不平等度가 커진다는 것이었다. 이와 비슷한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있는 논문은 알루왈리아의 것 이외에도 몰리(S. Morley: 1981), 램(R. Ram: 1984) 등 꽤 많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橫斷面資料에서 얻은 결론으로서 쿠즈네츠의 U字 過程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렇지만 오늘날의 先進經濟가 近代的 成長을 해오는 과정에서도 높은 人口增加率이 所得分配를 불평등하게 만드는 데 한 역할을 담당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대해 다음의 推論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첫째로 높은 人口增加率은 經濟活動人口중 老年層과 靑少年層의 비율을 점차 높임으로써 관찰된 分配의 狀態를 보다 불평등하게 보일 수 있다. 쿠즈네츠(1976)는 美國의 경우 靑少年, 老人 그리고 女子가 家長인 家計는 거의 低所得層에 밀집되어있음을 보이고 있고, 몰리(1981)는 브라질의 경우 低所得層은 대개 靑少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近代的 成長 初期의 높은 人口增加率에 의한 人口피라미드의 變形은 不平等度를 점점 높게 보이도록 하게 했을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두번째로 人口가 증가할 때 所得階層에 관계없이 똑 같은 비율로 증가한 것이 아니라 低所得層에서 더 높은 비율로 증가했다는 사실도 分配의 推移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쿠즈네츠(1979)도 언급하고 있듯이 이러한 사실은 여러 연구결과에서 밝혀져 있는데 低所

(17)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코울—후버(A. Coale and E. Hoover: 1958)와 쿠즈네츠(1966: 1979)를 참조하라.

(18) 인구 그 자체가 안정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增加率이 안정된 추세를 보였다는 말임에 주의하라.

(19) 유럽인이 정착한 곳이란 北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쪽의 러시아, 오세아니아를 통틀어 지칭하는 것이다.

得層이 평균적으로 더 많은 수의 子女를 갖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들과 高所得層과의 격차는 다음의 이유에서 더욱 벌어지게 될 것이다. 우선 많은 수의 家族을 부양해야 됨으로써 貯蓄의 餘力이 더욱 없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며 또한 많은 수의 子女는 각각에게 돌아갈 人的 投資(human investment)의 양을 줄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²⁰⁾ 마지막으로 알루왈리아(1976)가 지적했듯이 높은 人口增加率은 여타의 生産要素에 비해 勞動의 상대적 공급을 많게 해 勞動者의 몫을 작게 함으로써 不平等을 深化시킬 수 있다.

近代的 經濟成長과 더불어 나타난 人口의 急增現象이 초기의 不平等深化에 기여했으리라는 추론은 꽤 그럴 듯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후기에 들어오면서 人口增加의 추세가 안정되기는 했지만 인구 자체는 계속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分配의 狀態가 개선되기 시작했느냐에 대해서는 마땅한 대답을 얻기 어렵다. 물론 人口增加에 따른 不平等化의 壓力은 어느 정도 줄었지만 그렇다고 改善으로의 추진력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人口增加의 推移만으로 分配의 U字 모양을 설명하기에는 뭔가 미흡하다는 느낌을 가질 수 밖에 없다.

4. 人的資本

윌리엄슨(J. Williamson: 1980)은 19세기 英國에 있어서의 勤勞所得(earnings)의 分配狀態를 논의하면서 만약 한 經濟에 어느 정도의 所得分配의 不平等이 존재한다면 이중 많은 부분이 勤勞所得의 分배상태로서 설명될 수 있음을 상기시켰다. 사실 近代的인 所得分配理論에 있어서의 勤勞所得에 대한 관심은 지대한 것임에 틀림없다. 勤勞所得의 주된 결정요소는 각종의 人的資本(human capital)이며 따라서 經濟成長過程에서 인적자본이 어떤 推移를 보이느냐를 아는 것이 所得分配의 推移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한 經濟내에 존재하는 人的資本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所得分配은 平等한 경향을 보인다는 實證의 結果는 치스윅(B. Chiswick: 1971), 아델만—모리스(I. Adelman and C. Morris: 1973), 체너리—서퀸(H. Chenery and M. Syrquin: 1975), 알루왈리아(1976), 와인가든(C. Winegarden: 1979) 등 무수히 많은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다. 인적 자본이 축적되어감에 따라 生産過程에 있어서의 非熟練勞動이 점차 熟練勞動으로 代替되어 가게 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勤勞所得의 수준을 전반적으로 끌어 올릴 뿐 아니라 勤勞所得 내부의 격차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²¹⁾ 이와 같이 인적 자본의 축적이 所得分配의 平等化에 기여하리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게 믿을 수 있다. 近代的 經濟成長이 物的 資本의

(20) 人的投資는 공식, 비공식의 敎育뿐 아니라 營養, 保健을 위한 지출, 移住를 위한 지출 등 다양한 형태를 들 수 있다.

(21) 人的資本의 축적이 계속되면 勤勞所得 내부의 격차도 줄어들게 된다는 추론은 熟練勞動의 稀少性이 감소되어 이에 대한 프리미엄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데 근거하고 있다.

蓄積뿐만 아니라 人的 資本의 蓄積도 꾸준히 진행시켜 온 것을 생각해 보면 이로 인한 平等化 效果가 상당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러나 한가지 주의할 점은 이와 같이 人的 資本의 蓄積과 所得分配의 平等이 正의 相關關係를 갖는 것이 하나의 長期的 現象이라는 것이다. 치스윅(1971)의 模型이 그 가능성을 보여 주듯 平均的인 人的 投資의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勤勞所得의 分配가 보다 不平等해 질 수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특히 경제내의 人的 資本의 양이 아주 낮은 수준에 있을 때 단기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대부분의 勞動力이 文盲이거나 非熟練狀態에 있을 때 소수의 勤勞者가 많은 인적 투자를 지니고 勤勞市場에 참여할 때 이들이 높은 프리미엄을 要求할 수 있음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人的資本의 스톡이 미미한 상태에서 투자가 개시될 즈음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투자는 勤勞所得의 分布를 가운데로 향해 오무리게 하느니 보다는 오히려 잡아 늘리는 역할을 하게 된다.⁽²²⁾ 이러한 현상은 인적 자본의 축적이 어느 수준 이상에 도달해서 그리 높지 않은 프리미엄 밖에 요구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윌리엄슨(1980, 1986)은 英國에서 1850년경을 분기점으로 하여 勤勞所得의 分配가 平等化로 反轉하게 되는데 이의 주된 원인은 職種間의 報酬의 격차가 줄어들게 된 데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같은 설명이 人的資本과 勤勞所得의 分配의 관계에 대한 앞서의 推論과 相應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5. 綜合的 評價

이상에서 든 네가지의 要因들이 어떤 구체적인 근거위에서 지적된 것은 아니고 推論의 성격이 강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들이 U字 모양의 패턴을 함축하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의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는 보다 本格的인 研究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위의 논의를 종합해 볼때 近代的 經濟成長의 과정에 대한 하나의 像을 그려볼 수 있으며, 그 像은 分配狀態의 變化推移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위에서 열거한 要因들의 근거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흐름은 近代的 經濟成長이란 현상이 그 이전까지는 거의 停滯狀態에 머물고 있던 社會를 커다란 충격으로 뒤흔들었으며 이 충격의 波長은 그 社會의 일부분에서 시작되어 經濟全體로 파급되었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점이다. 급격한 經濟成長의 계기가 되었던 것이든 혹은 成長에 수반하여 나타나게 되었든 간에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게 된 현상들 즉 工業化, 都市化, 物的

(22) 人的投資가 가속화되는 것과 비슷한 시기에 産業化로 인한 熟練勞動에 대한 需要의 急増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다면 이 需要側要因은 당분간 프리미엄을 계속 올리는 역할을 했을 것이다.

및 人的資本의 빠른 蓄積 그리고 人口의 急增 등은 각국의 경제사회를 그 토대부터 흔드는 큰 變化였다. 이 成長으로의 자극은 初期段階에서는 그 사회의 일부분에 국한되어서 일어난다. 따라서 成長의 果實도 자연히 일부분에 집중되게 되고 分配의 不平等은 점차 深化되게 된다. 오랜 政體상태에서 갑자기 近代的 成長으로 뛰어 들게 될 때 그 사회의 전체가 함께 참여 하기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成長初期에 있어서의 不平等化的 힘은 상당히 강한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分配推移에 대해 내린 아델만—모리스(1973)의 悲觀的인 評價도 이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成長의 波長이 경제전체로 파급되면서 不平等化的의 힘도 약화되게 된다. 이 단계에서의 成長은 少數의 引導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多數의 參與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成長의 果實도 점차 고르게 나눠 질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의 先進經濟의 경험으로 볼 때 이와 같은 自然發生的인 平等化的의 힘에 크게 박차를 가한 것은 때마침 등장한 平等主義의 思潮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思潮가 不平等의 深化 그 자체에 대한 반발로서 태어났을 가능성이 크지만 그것의 사실여부는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린더트—윌리암슨(1983)은 마르크스의 著作, 勞組의 勢力化 혹은 累進稅制 등 일련의 平等主義 思潮의 구체적인 示顯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英國의 所得分配은 平等化로의 反轉을 시작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현상들이 平等化的의 흐름에 박차를 가했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獨占力의 規制나 勞組活動의 保障같은 平等主義에 입각한 介入이 없었다면 平等化的의 진전은 훨씬 느렸을 것임에 틀림없다. 쿠즈네츠假說을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에 적용해 보려 할 때 가장 조심을 요하는 부분이 바로 이와 같은 社會的 介入이란 측면이다. 平等化를 지향하는 社會的 介入은 成長의 어느 段階에서나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과거 先進經濟가 걸었던 길을 똑 같이 반복하리란 보장이 없음에 주의해야만 하는 것이다.

IV. 쿠즈네츠假說과 開發途上國

쿠즈네츠假說이 先進經濟의 歷史的 經驗에 대한 가설이면서도 오늘날 經濟發展理論에 관심을 가지는 학자들의 많은 관심을 끄는 데는 經濟發展過程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命題 즉 어떻게 成長과 分配를 調和시키면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에 대해 크게 시사해 주는 바가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18, 9세기에서의 先進經濟와 오늘날에 있어서의 開發途上國사이에는 비슷한 점도 많이 있지만 미묘한 차이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쿠즈네츠假說의 무분별한 적용은 때때로 혼란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이 假說과 관련해서 하나의 분명한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가끔 알게 모르게 오해되고 있는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입증될 수 있는 것으로서의 假說은 엄밀히 말해 先進經濟에 국한되는, 더구나 歷史的인 經驗에서 추출된 가설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發展하는 경제가 반드시 거쳐 가야할 과정에 대한 가설로 오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假說은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에 있어 하나의 참고는 될 수 있을 지언정 그 이상의 것이 되어선 안된다. 그러나 작금의 논의를 돌이켜 보면 이점이 그렇게 잘 이해되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솔직히 말해서 쿠즈네츠假說이 經濟發展을 전공으로 하는 학자나 發展政策을 입안하는 사람들에 의해 특별한 주목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成長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平等化現象이 나타난다는 대목에 있는 것이 아니라 成長의 初期에 不平等이 深化된다는 대목에 있음이 틀림없다. 이 대목이 어떤 사람에 있어서는 當感感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편리한 口實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이와 같은 입장의 차이가 假說의 我田引水格의 解釋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으로서 위에서 지적한 오해도 사실에 있어서는 고의적인 것인지도 모른다. 成長의 初期에 不平等이 深化된다는 대목에서 당혹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發展(development)이라는 것이 단순한 經濟의 外的 規模의 成長뿐 아니라 동시에 公平性의 價値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데 있다고 믿는 사람들일 것이다. 그들에 있어서는 成長과 分配를 동시에 성취시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상당히 어려운 選擇의 問題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만약 成長과 分配사이의 關係가 단순히 일반적인 經濟理論에서 논의되고 있는 「效率性과 公平性間의 相衡關係(efficiency-equity tradeoff)」의 차원이 라면 이들에게 그리 큰 당혹감을 주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效率性과 公平性은 최소한 단기적인 관계에서 그 본질상 兩立되기 힘든 성격이 있다”는 데 그치지 않고 “成長의 初期에서는 分配의 狀態가 반드시 惡化된다”라는 결과에 있어서의 相衡關係라면 문제가 다르게 된다.

다른 한편 쿠즈네츠假說에서 便利한 口實을 찾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일 것이다. 이들은 發展이 궁극적으로 보다 더 公平한 社會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사실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지만 戰略上 일단은 成長에 주력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들에 있어 쿠즈네츠假說은 자신들의 입장을 正當化시켜 주는 데 안성맞춤인 것이다. “보라! 先進國도 애초에는 不平等의 深化를 감수하고 成長을 계속한 끝에 오늘의 풍요를 이룩하게 되었고 결국은 分配의 平等化도 가져오게 되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에 反論을 펴기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임에 틀림없기 때문이다. 먼저 成長하고 나중에 分配에 관심을 돌릴 것이나 아니면 兩者를 동시에 추구해 나가면서 發展할 것이나 하는 문제에 있어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짓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문제에 객관적인 답을 줄 근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단 成長하고 보자는 식의 發展哲學도 하나의 당당한 哲學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러나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의 현실을 냉철하게 관찰해 보면 이러한 哲學의 순수한 發現을 볼 수 있다기 보다는 政治的 便宜에 의한 我田引水格의 적용을 더 흔하게 보게 된다. 開發途上國치고 政治的 民主化를 성취한 나라는 거의 없고 非民主的인 政治體制下에서는 公平한 分配보다 빠른 成長이 더욱 選好되는 여러가지 자명한 이유가 존재한다. 이 경우 먼저 成長하고 나중에 分配하자는 접근법은 정정당한 發展哲學의 소산이 아니고 哲學의 不在에서 나오는 것이며,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간에 分配問題의 解決에 성의가 없는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쿠즈네츠假說 그 자체는 成長과 分配를 동시에 추구할 것을 바라는 사람에게 당혹감을 줄 필요도 없으며, 의식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公平한 分配의 문제를 경시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정당화시켜 주는 것도 아니다. 그 假說의 보다 엄밀한 해석은 이와 같은 皮相的 解釋이 가져다 줄 수 있는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보다 정확한 假說의 理解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에 유의해야 한다.

첫째로 先進國들이 수세기에 걸쳐 경험해 온 近代의 經濟成長의 과정은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이 몇십년이란 짧은 기간에 경험하는 發展過程과는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도 우선 先進經濟가 본격적인 成長을 시작할 무렵에선 發展計劃(development planning) 같은 조직적이고 대규모적인 政府의 介入은 찾아볼래야 찾아 볼 수가 없었다. 따라서 資本蓄積이나 産業化같은 현상이 成長이나 分配 같은 목표들을 염두에 두고 행해진 것이 아니라 오직 個別的인 經濟主體들의 私利追求에 의해 지배되었던 것이다. 실사 政府의 介入이 있었다 할지라도 公平한 分配를 위한 개입은 그 必要性조차 느끼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 資本主義體制가 가져다 줄 수 있는 엄청난 不平等에 대한 인식이 社會各層에서 널리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훨씬 더 뒤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成長初期에 생겨날 수 있는 여러 不平等化 要因이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작용할 수 있었고 그 결과 分配의 狀態는 서서히 惡化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이에 비해 開發途上國에서는 모든 일이 짧은 시간에 압축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전개 양상도 달랐을 뿐더러 政府의 강력한 영향이란 또 다른 측면이 있었다. 따라서 한 經濟의 發展過程은 거의 전적으로 發展計劃의 소산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다. 물론 그 發展計劃이 성공적으로 수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지만, 실제의 發展過程에서 成長과 分配가 어떻게 組合되어 나타날 것인가는 그 나라의 政策立案者가 어떤 성격의 發展計劃을

추진하고 있느냐에 크게 의존하게 된다. 先進國에서 일어난 成長初期에 있어서의 不平等의 深化는 자연발생적인 요소가 크다고 할 수 있다.⁽²³⁾ 그에 반해 開發途上國에서 그와 비슷한 현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이를 發展戰略과 연결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비록 不平等化의 요인이 존재하고 있다할지라도 그것이 도저히 극복하지 못할 만큼 강한 것은 아니며, 적절한 대응책을 통하여 成長과 分配를 調和있게 추구해 온 사례가 있음을 앞에서 본 바 있다. 한 경제의 資源配分이 經濟發展計劃을 통해 거의 빈틈없이 통제되고 있는 터에 分配問題에 대해서만은 어찌할 수 없다는 책임회피에는 아무런 설득력도 발견할 수 없다.

둘째로 쿠즈네츠假說은 높은 成長率과 公平한 分配가 相衡된다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란 점이다. 많은 사람들이 쿠즈네츠假說을 이와 같이 오해하는 경향이 있음을 본다. 그러나 成長初期에 不平等이 深化되는 경향이 있다는 말과 成長率이 높으면 높을수록 不平等이 커진다는 말은 결코 같을 수 없다. 또한 分配의 不平等이 成長의 原動力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다. 이점들이 명백히 이해되었던들 쿠즈네츠假說을 구실 삼아 分配의 問題에 태만히 해온 현상은 훨씬 줄어들었을 것이다. 빠른 成長을 하면서도 公平한 分配를 성취할 수 있는데 구태여 分配狀態의 惡化를 바랄 이유가 없다.⁽²⁴⁾

실제에 있어 알루왈리아(1976)의 國家間比較研究의 결과에 의하면 더 빠른 成長率이 더 큰 不平等을 가져온다는 假說이 부정될 수 밖에 없다고 한다. 不平等度의 說明變數들에 대해 그가 행한 갖가지의 시도에서 成長率變數의 係數는 모두 有意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체너리等(H. Chenery et al.: 1974)도 더 빠른 成長이 더 큰 分配上의 不平等을 가져온다는 推論을 實證的 資料로서 논박하고 빠른 成長과 公平한 分配를 모두 가져올 수 있는 發展戰略의 수립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여러 나라들을 1人當 國民所得의 수준에 따라 배열할 때 分配의 狀態는 U字的 모양을 그리게 된다는 쿠즈네츠假說의 橫斷面的 類推가 가능하다 해서 한나라의 分配狀態를 결정하는 요소로서 1人當 國民所得의 水準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아델만—모리스(1973)의 開發途上國에 있어서의 不平等을 일으키는 요인에 관한 분석에 따르면, 고려의 대상이 된 31개의 經濟的, 社會的, 政治的 要因중 1人當 國民所得은 주요한 不平等化 要因 여섯개중에도 못끼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²⁵⁾ 체너

(23) 그러나 윌리암슨(1986)은 英國의 경우 不平等의 深化가 勞動市場에서의 硬直性 혹은 穀物法 같은 制度的, 政治的 要因에 크게 의존할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24) 윌리암슨(1986)은 英國의 예를 들어 分配의 不平等이 높은 貯蓄率이란 경로를 통해 産業化 初期의 成長에 주요한 原動力이 되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5) 그 여섯개란 ① 人的資源의 질의 개선의 속도, ② 自然資源의 풍부함, ③ 직접적인 政府의 經濟活動의 정도, ④ 二重構造의 정도, ⑤ 發展潛在力の 정도, ⑥ 政治的 參與의 정도이다. 아델만—모리스의 결론에 대한 포커트(F. Paukert: 1973)의 批判을 참고하라.

리-서킨(1975)도 나라와 나라 사이의 所得分配의 차이가 단지 1人當 國民所得의 수준의 차이만으로는 잘 설명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다음의 세가지 變數를 추가로 고려할 때 더욱 잘 설명된다고 말했다. 우선 學齡靑少年중 學生의 比率과 一次産業의 比重인데 이것들이 높으면 높을수록 분배는 더욱 平等한 경향이 있고, 다음으로는 輸出중 一次產品의 比重인데 이것이 높을수록 보다 不平等한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分配의 상태를 설명해주는 변수로서의 1人當 國民所得 水準에 대한 회의는 알루알리아(1976)에 의해서도 표시되고 있다. 그는 發展과 不平等사이에서의 진정한 관계는 發展過程에서 발생하는 각종의 構造的 變化의 효과를 반영하는 매우 복잡한 것임을 생각할 때 이를 1人當 GNP라는 하나의 變數로 압축해 설명하는데 우리가 따르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²⁶⁾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分配의 狀態가 어느 經濟를 막론하고 오직 成長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느냐에 의해서 결정될 것이라는 식으로 쿠즈네츠假說을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오히려 그 나라의 歷史的, 社會的, 文化的 背景 혹은 經濟의 構造的 特徵들이 분배상태의 결정요인으로서 더욱 중요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成長의 初期段階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분배 상태가 악화됨이 없이 계속 개선될 수도 있다는 점을 말해주는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현재 우리가 대부분의 開發途上國에서 목격할 수 있는 현상 즉 지속적인 分配狀態의 惡化와 쿠즈네츠假說사이에 어떤 필연적인 관계가 존재하지는 않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이 假說을 엄밀히 吟味해 볼 때 비록 成長의 初期段階에서라 할지라도 成長의 促進이 반드시 分配의 惡化를 가져온다는 含意를 끄집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分配狀態의 惡化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쿠즈네츠假說을 즐겨 들먹거림을 종종 본다. 또한 쿠즈네츠假說은 성장이 어느 단계에 이르면 轉換點이 올 것이라는 데 대해 아무 것도 얘기해 주는 바가 없다. 아무런 노력이 없더라도 성장이 어느 단계에만 이르던 자동적으로 改善이 시작된다고 말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기다리기만 하면 일이 저절로 해결될 듯이 설득하는 데 있어 편리하게 그 假說을 이용하는 것이다. 假說의 이같은 의식적, 무의식적 誤解가 발전과정에 있어서의 분배문제를 둘러싼 논의에 수많은 불필요한 혼란을 가져왔던 것이다.

(26) 알루알리아에 있어서의 「發展」의 정도는 一人當 國民所得의 수준으로 대표된다고 가정되어 있다. 따라서 本論文에서의 用語로 따지면 「成長」을 의미한다고 해야 좋을 것이다.

V. 맺 음 말

經濟發展이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국민의 物質的 厚生の 改善이다. 적절한 分配가 전제되지 않은 成長 그 자체는 국민전체의 物質적 후생에 이렇다 할 改善을 가져다 줄 수 없다. 따라서 發展을 지향하는 經濟에서 公平한 分配에 대한 강한 욕구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開發途上國은 거의 모두다 公平한 分配라는 理想에는 한걸음도 다가가지 못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빠른 成長을 성취한 나라도 드물지만 公平한 分配에 눈에 띄일만한 진전을 보인 나라는 더 한층 드물다. 成長의 果實이 오직 소수의 사람들 수중에 집중되고 있음을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과연 成長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데 대해 강한 의심을 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많은 開發途上國들이 政治的, 社會的 不安定으로 빠져거리고 있음도 이같은 불만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러한 불만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理論的 武器로 쓰여 온 것이 쿠즈네츠假說이었다. 우선 先進國들도 成長의 初期에서는 비슷하게 不平等이 深化된 경험을 갖고 있음을 들어 지금의 상태가 걱정할만한 것이 아니라고 설득한 것이다. 한걸음 더 나아가 經驗的 法則을 論理的 必然으로 비약시켜 成長의 初期에는 여러가지 不平等化의 요인에 의해 不可避하게 分配가 惡化될 수 밖에 없다는 강변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상에서의 논의는 開發途上國에서 적절한 分配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 쿠즈네츠假說을 들어 변명하려 하는 태도에 아무런 정당성도 없음을 명백히 해주고 있다.

쿠즈네츠假說이 의미하는 바의 U字 패턴이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의 경험으로 立證된 바 없다. 만약 확인된 것이 있다면 假說의 前半 즉 成長의 初期에 있어서의 不平等의 深化일 뿐이다. 平等化로의 反轉을 미래에 보게 될 것인지 아닌지는 더욱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볼 문제이다. 假說 그 자체에는 開發途上國에서도 분명 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리라고 말해주는 점이 없다. 쿠즈네츠假說은 經濟史的 命題일 뿐 經濟發展의 一般論에 포괄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할 것이다. 本論文에서 상당한 지면을 들여 서술한 假說의 形成過程에 대한 설명은 이점을 명백히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經濟發展의 관점에서 쿠즈네츠假說을 올바르게 받아들이는 태도는 分配問題에 대한 무관심을 정당화시키는 구실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分配問題에 대해 더 큰 관심을 불러 일으키는 데 사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經濟史的 命題로서의 그 假說의 의의는, 成長의 初期段階에 있어서의 경제내부에는 많은 不平等化 要因이 도사리고 있어 자칫하면 不平等의 深化가 나타남을 상기시켜 주는 데 있다고 보여진다. 불평등의 심화가 실제로 많은

先進經濟의 成長 初期段階에서 나타났고, 따라서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이 分配問題에 각별한 관심을 쏟지 않는 한 이들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큼을 경고하고 있다고 해석해야만 비로스 假說을 올바르게 受容하는 것이 될 것이다. 18, 9세기의 先進國政府가 직면했던 平等에의 요구와 오늘날의 開發途上國의 政策立案者가 직면하고 있는 平等化에의 요구는 그 強度에 있어 현격한 격차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대부분 植民地時代의 不公平을 경험한 이들 開發途上國에 있어서는 平等한 社會를 건설해야 한다는 것이 하나의 理想으로서 成長 못지 않은 중요성을 가진 發展의 課題로서 인식되어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강한 平等化에의 熱望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비상한 노력이 뒤따라야만 함을 쿠즈네츠假說은 경고하고 있다.

한 經濟의 發展過程에서 成長과 分配라는 두 현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有機的인 相互關係를 유지하게 된다. 그 關係를 단순히 成長의 段階가 分配의 狀態를 결정짓는 요인이라는 식의 一方的 關係로 보아서도 안되고 分配의 不平等이 成長의 原動力이 된다고 단정지어서도 안될 것이다. 쿠즈네츠假說을 자칫 잘못 해석하면 그와 같은 오류를 범하게 된다. 한편 成長과 分配의 關係에 대해서 쿠즈네츠假說이 전혀 손조차 대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分配의 公平性이 경제전체의 生産性에 영향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成長에 영향을 주게 되는 經路이다. 일반적인 經濟理論은 不平等한 分配가 資本蓄積을 가속화시켜 成長을 촉진하게 된다는 식의 주장에 호의적인 것처럼 보일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事物의 한 측면만을 본 것에 지나지 않는다. 經濟成長의 궁극적인 原動力은 蓄積된 資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다 잘 살아보려는 사람들의 意志에 있는 것이다. 分配의 不平等은 이러한 意志를 좌절시키게 될 뿐 아니라 지속적인 成長의 前提條件이 되는 社會安定을 파괴하고 말 것이다. 보통의 經濟理論은 이점에 대해 입다물고 있지만 그와 같은 가능성은 현실에 엄존하고 있다. 수 많은 開發途上國에서 分配의 問題는 거들떠 보지 않은 채 성급하게 成長만을 재촉한 조급함 때문에 오히려 揠苗助長의 愚를 범하고 만 예를 우리는 잘 보아 왔다. 외형적으로만 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용을 담고 있는 發展을 熱望하고 있는 우리로서, 쿠즈네츠假說의 올바른 메시지를 받아들임이 더욱 중요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이유는 바로 이같은 愚를 또 다시 범하지 말자는 데 있는 것이다.

參 考 文 獻

- Adelman, I., "Development Economics—A Reassessment of Goals,"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5, pp. 302-309.

- Adelman, I. and C. Morris, *Economic Growth and Social Equity in Developing Countries*, Stanford University Press, Stanford, California, 1973.
- Ahluwalia, M., "Inequality, Poverty and Development,"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Dec. 1976, pp. 307-342.
- Ahluwalia, M., "Rural Poverty and Agricultural Performance in India,"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Apr. 1978, pp. 298-323.
- Anand, S. and S. Kanbur, "Poverty Under Kuznets Process," *Economic Journal*, Supplement 1984, pp. 42-50.
- Bacha, E. and L. Taylor, "Brazilian Income Distribution in the 1960s: 'Facts,' Model Results and the Controversy,"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Apr. 1978, pp. 271-297.
- Chenery, H. *et al.*, *Redistribution with Growth*,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74.
- Chenery, H. and M. Syrquin, *Patterns of Development*, Oxford University Press, Oxford, 1975.
- Chiswick, B., "Earnings Ine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71, pp. 21-39.
- Cline, W., "Distribution and Development: A Survey of Literature,"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Feb. 1975, pp. 359-400.
- Coale, A. and E. Hoover, *Population Growth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ow-Income Countr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1958.
- Comanor, W. and R. Similey, "Monopoly and the Distribution of Weal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May 1975, pp. 177-194.
- Fei, J. *et al.*, "Growth and the Family Distribution of Income by Factor Component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Feb. 1978, pp. 17-53.
- Fields, G., "Who Benefits from Economic Development? A Reexamination of Brazilian Growth in the 1960s," *American Economic Review*, Sep. 1977, pp. 570-582.
- Fields, G., "A Welfare Economic Approach to Growth and Distribution in the Dual Econom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Aug. 1979, pp. 325-353.
- Fishlow, A., "Brazilian Size Distribution of Income," *American Economic Review*, May 1972, pp. 391-402.
- Gillis, M., *et al.*, *Economics of Development*, Norton, New York, N.Y., 1983.

- Kindleberger, C. and B. Herrick, *Economic Development*, 3rd ed., McGraw-Hill, New York, N.Y. 1977.
- Kravis, I.,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the Distribution of Incom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60, pp. 408-416.
- Kravis, I., *The Structure of Income: Some Quantitative Essays*, University of Pennsylvania Press, Philadelphia, Pennsylvania, 1962.
- Kuznets, S., "Economic Growth and Income Inequality," *American Economic Review*, Mar. 1955, pp. 1-28.
- Kuznets, S., "Quantitative Aspects of the Economic Growth of Nations: VIII Distribution of Income By Size,"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 1963, pp. 1-80.
- Kuznets, S., *Modern Economic Growth*,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Conn., 1966.
- Kuznets, S., *Growth, Population and Income Distribution*, Norton, New York, N.Y., 1979.
- Lewis, W.A., "Economic Development with Unlimited Supplies of Labor," *Manchester School*, May 1954, pp. 139-191.
- Lewis, W.A., *The Theory of Economic Growth*, Allen and Unwin, London, 1955.
- Lindert P. and J. Williamson, "Reinterpreting Britain's Social Tables, 1688~1913," *Explorations in Economic History*, Jan. 1983, pp. 94-109.
- Little, I., *Economic Development*, Basic Books, New York, N.Y., 1982.
- Lundberg, F., *The Rich and the Super-Rich*, Lyle Stuart, New York, N.Y., 1968.
- Morawetz, D., "Employment Implications of Industrialization in Developing Countries: A Survey," *Economic Journal*, Sep. 1974, pp. 491-542.
- Morley, 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Population on Several Measures of Income Distribu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81, pp. 285-294.
- Nugent, J., "An Alternative Source of Measurement Error as an Explanation for the Inverted-U Hypothesis,"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Jan. 1983, pp. 385-396.
- Oshima, H., "The International Comparison of Size Distribution of Family Incomes with Special Reference to Asia,"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Nov. 1962, pp. 439-445.
- Paukert, F., "Income Distribution at Different Levels of Development: A Survey of Evidence," *International Labor Review*, Aug./Sep. 1973, pp. 97-125.
- Prokopovich, S., "The Distribution of National Income," *Economic Journal*, Mar. 1926.

- pp. 69-82.
- Ram, R., "Population Increase, Economic Growth, Educational Inequality, and Income Distribution,"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Apr. 1984, pp. 419-428.
- Repetto, R., "The Interaction of Fertility and the Size Distribution of Income," *Journal of Development Studies*, July 1978, pp. 22-39.
- Robinson, S., "A Note on the U Hypothesis Relating Income Inequality and Economic Development," *American Economic Review*, June 1976, pp. 347-440.
- Saith, A.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A Critique of the Cross-Country U-Hypothesi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Dec. 1983, pp. 367-382.
- Soltow, L., *Toward Income Inequality in Norway*,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Madison, Wisconsin, 1965.
- Soltow, L., "Long-run Changes in British Income Inequality," *Economic History Review*, Apr. 1968, pp. 17-29.
- Weiskoff, R., "Income Distribution and Economic Growth in Puerto Rico, Argentina and Mexico," *Review of Income and Wealth*, Dec. 1970, pp. 303-332.
- Williamson, J., "Earnings Inequality in Nineteenth-Century Britain," *Journal of Economic History*, Sep. 1980, pp. 457-475.
- Williamson, J., "British Inequality During the Industrial Revolution: Accounting for the Kuznets Curve," Harvard Institute of Economic Research Discussion Paper No. 1234, May 1986.
- Williamson, J., and P. Lindert, *American Inequality*, Academic Press, New York, N.Y. 1980.
- Winegarden, C., "Schooling and Income Distribution: Evidence from International Data," *Economica*, Feb. 1979, pp. 83-87.
- Wolfe B., et al., "The Impact of Demographic Changes on Income Distribution in a Developing Country,"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Dec. 1982, pp. 355-377.